



3면

인사 청문 재개정협약 체결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음 12월 29일) 제318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설 맞아 투호를 즐기는 어린이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9일 전주시 교동 원광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투호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도내 설 연휴 문화행사 '풍성'

'한복림, 영원한운동' 등 전시·공연 다채
도내 박물관서 전통민속 프로그램 운영

2023년 계묘년 새해, 전북도 일원에서는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며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행사가 펼쳐진다.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과 설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전북도 문화예술 공연은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먼저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도예 1세대인 한복림 작가의 '한복림 영원한 운동', 전라북도 원로작가들의 소장품을 전시한 '도화(畵)선: 전북에 피어오른 불씨불, 산을 주제로 한 미술관 소장품 전시 바중시루'를 비롯해 전주역사박물관의 계묘년 첫 기획전 '新명품민화,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계란한 관, 결혼할 나이', 예디션을 위하여 등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 분야에서는 19일 전주시립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2월까지는 가족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비자 콘서트' 등 10여개의 다양한 공연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된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상류놀이 한마당', 토끼민화를 활용한 열쇠고리만들기, 제기차기·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운영,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연날리기, 소원엽서 작기체험 등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북의 고대성과 특별전'을 운영한다. 이 밖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 전시 '순종과왕 비탄타고 파도 넘어' 등 연휴 동안 일부 도내 박물관, 미술관에서 다채로운 전시 행사 관람이 가능하다.

전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들과 설명절을 맞아 전북도를 방문하시는 귀성객들이 도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전시행사를 통해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일대 개발 '맞손'

도교육청-전주시, 미래교육캠퍼스·전시컨벤션산업 거점기지 조성 협약
전시·회의·문화·예술·상업·교육 아우러진 공간 조성에 공감대 형성

전북교육청과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미래교육캠퍼스와 전시컨벤션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시장은 19일 전라각영에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 교육감과 우 시장을 비롯해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사진 4면>

이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라중학교 일대를 전시와 회의, 문화, 예술, 상업, 교육이 아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전주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

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 교육기관과 자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적 협력체계 구축 △미래교육캠퍼스설립 및 창의·천재·교육 등 콘텐츠 개발 △종합경기장 내 전시컨벤션센터와 시립미술관 등 건립 △개발부지 일부를 이동형 조형물 설치공간과 주차장, 녹지 및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전주시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종합경기장 일대가 각종 전시·예술·문화·체험·교육 및 휴식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되면서 폭넓은 문화 향유의 공간이자 전북도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캠퍼스가 설립되면 종합경기장 내 시설들과 함께 이 일대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교육 메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전주야호화교에서 미래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교육발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 경제의 성장과 대변혁을 위해 종합경기장 부지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

을 통해 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시산업의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물론 전주시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해 AI·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미래교육캠퍼스는 미래사회 인재육성의 거점과 미래교육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따뜻함으로 가득 찬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1월 24일까지 신문 쉽니다.

설날 전북 대부분 비 또는 눈

전주기상청 설 연휴 기상 전망

전주기상청(지청장 이용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는 설 당일인 22일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는 전북 서해안 및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매우 추워지는 만큼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설 연휴 초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겠으며, 설 당일은 저기압 그 이후는 북서쪽에서 확장해오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까지 전북지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21일 아

침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낮부터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당일인 22일에는 북쪽과 남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하고, 특히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부터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점차 확장하고, 24일은 서해안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일부 남부내륙(정읍·순창)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시작돼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은 19일부터 육상 날씨뿐만 아니라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정보를 포함한 설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김영태 기자

미래를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創新飛翔

혁신과 성장으로 부안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 기부** 실천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부안군청 재무과 세입징수팀 063.580.4828

부안은 살리90 행복은 물리90